

2021 전략적 기술 트렌드 및 조치 : Gartner‘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을 중심으로

오 유 리*

1. 개요

전세계적으로 COVID-19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이러한 팬데믹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트너는 전례없는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 중심(People centricity)’, ‘위치 독립성(Location independence)’, ‘탄력적 전달(Resilient delivery)’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을 발표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연구원, (043)531-4311, yr562@kisdi.re.kr

〈그림 1〉 2021 주요 전략적 기술 트렌드

 People Centricity	 Location Independence	 Resilient Deliv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et of Behaviors • Total Experience • Privacy-Enhancing Compu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tributed Cloud • Anywhere Operations • Cybersecurity Me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 • AI Engineering • Hyperautomation
Combinatorial Innovation		

자료: Gartner(2020.10.)

조직이 위기 대응에서 기회를 활용하고 성장을 추진하는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주요 전략적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트렌드와 기술은 서로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반으로 할 때 강화되며, 결합적인 혁신(combinatorial Innovation)에서 트렌드는 결합하여 개별 부분보다 더 큰 전체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표 1〉 2021 주요 전략적 기술 트렌드 테마

구분	주요내용
People Centricity	- 사람들의 행동, 경험 및 개인정보보호에 중점
Location Independence	- COVID-19 팬데믹은 위치 독립성 크게 증가 - 비즈니스와 IT 모두에게 모든 운영을 지원하는 분산형 클라우드 구조를 주도하는 기술변화를 다룸 - 사이버보안 메시가 개인에게 보안 경계를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설명
Resilient delivery	- 역동적(dynamic) 비즈니스 또는 IT 환경에서 민첩하게 적응하거나 회전(pivot)시킬 수 있는 능력

자료: Gartner(2020.10.)을 참고하여 정리함

COVID-19는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례없는 상황을 주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가트너의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 통해 2021년 전략적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action)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전략적 기술 트렌드

(1) 행동 인터넷(IoB; Internet of Behaviors)

가트너의 'Top Strategic Predictions for 2020 and Beyond'에서도 언급된 IoB는 안면인식, 데이터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특정 행동을 유도하여 사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소스(source)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 '디지털 먼지(Digital dust)'를 포착하고, 사용자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는 상업적 고객 데이터부터 소셜미디어, 안면인식 등 다양한 소스에서 얻을 수 있으며 IC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IoB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IoB는 중요하고 널리 퍼진 사회적·윤리적인 의미(implication)를 제공한다.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사회적 수용은 조직이 작업에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보험료 인하의 대가로 속도, 제동, 코너링을 추적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해서는 수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2) 총체적 경험(Total experience)

총체적 경험(Total experience)은 멀티 경험(Multi Experience; MX),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 CX), 직원 경험(Employee Experience; EX),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과 같이 전통적이며 고립된(siloed) 분야를 결합하고 이를 연결하여 비즈니스 결과를 혁신한다. 더불어 총체적 경험을 통해 조직은 COVID-19의 발생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통합 및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창출한다.

총체적 경험은 모두를 위한 상호 이익(mutual benefit)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고품질의 사용자 경험을 보유한 직원이 업무효율성, 생산성, 체류 의향, 재량적 노력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최소 1.5배 높으며, 가트너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

77%가 일상경험과 고객 경험 사이에 강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총체적 경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솔루션을 제안한다.

〈표 2〉 총체적 경험 혁신 추진을 위한 솔루션과 추진이유

솔루션	추진 이유
고객과 제휴	- 강력한 고객 경험 솔루션은 고객에게 더 큰 공감(resonate)을 줄 것임
직원 활성화	- 강력한 직원 경험 통해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솔루션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짐
솔루션 채택	-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사용하면 솔루션이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해짐
솔루션 구현	- 멀티 경험을 사용하면 솔루션 성능 향상 및 다용도로 사용 가능해짐

자료: Gartner(2020.10.)을 참고하여 정리함

예를들어, 대형 통신회사에서 기존 앱을 통해 예약 시스템(appointment system)을 구축했을 때 손님들이 도착하면 가게로부터 75 피트 내에 오면 직원들은 두 가지 알림을 받는다. 첫째로 체크인 절차를 안내하는 알림, 두 번째가 매장 내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는 알림으로 COVID-19로부터 직원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3)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Privacy-enhancing computation)

글로벌 데이터 보호 법률이 성숙해지는 반면 개인 데이터가 끊임없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직은 더욱 높은 개인 정보보호 및 규정 위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자간 데이터 공유 및 분석을 수행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분석 엔진과 아키텍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볼트 온 접근방식(bolt-on approach)이 아닌 설계별 개인정보보호기능(by design privacy)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미사용 데이터 보안 통제와 달리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은 사용중인 데이터를 보호하여 비밀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유지하는데,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문제로 인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은 안전한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세 가지

유형의 기술로 구성된다. 각 기술은 다음과 같으며 특정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며 일부를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표 3〉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구분	주요 내용
중요한 데이터 처리/분석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신뢰할 수 있는 타사 및 하드웨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환경(confidential computing)이 포함됨
분산된 방식으로 처리 및 분석 수행	- 연합 머신러닝(federated machine learning)과 개인정보보호 인식 머신러닝 포함됨
처리 또는 분석 전에 데이터와 알고리즘 변환	- 차등 개인정보보호, 동형 암호화, 다자간 컴퓨팅, 영 지식 증명(zero-knowledge), 개인 집합 교차, 개인 정보검색 포함

자료: Gartner(2020.10.)을 참고하여 정리함

(4) 분산형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

분산형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는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퍼블릭 클라우드 옵션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는 서비스를 유지, 운영, 발전시키지만 필요에 따라 물리적으로 실행한다. 이를 통해 지연시간 문제와 특정 데이터를 특정 지리적 위치에 유지해야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퍼블릭 클라우드 이점을 누리면서 비용이 높고 복잡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피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미 많은 고객이 자신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술들을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객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즉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 기존 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 매몰비용(Sunk cost), 지연 시간 요구사항, 규제 및 데이터 상주 요구사항, 비클라우드 온 프레미스 시스템과의 통합 필요성들이 이를 지연시킨다. 대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영감을 받은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스타일과 퍼블릭 클라우드 스타일을 조합함으로써 하이브리드 IT 환경이 구축된다. 조직은 분산형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사례를 발전시키고 있다.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

하려면 진화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배포 모델을 식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어디서나 사용(Anywhere operations)

전세계적으로 COVID-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가트너는 COVID-19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조직은 '어디서나 사용(Anywhere operations)' 기반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준비와 탄력(resilience)은 주로 디지털 기능의 성숙도와 준비 상태에 달려있다.

'어디서나 사용'은 모든 곳에서 고객을 지원하고 직원이 어디에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산된 인프라 전반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구현을 관리하도록 설계된 IT 운영모형을 말한다. '어디서나 사용' 모델은 'digital first, remote first'이나 원격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원활하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려면 기술 인프라, 관리 관행, 보안 및 거버넌스 정책, 지원과 고객 참여모형을 변경해야 한다.

어디서나 사용의 예로는, 여러 은행이 모바일 전용이 있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이체, 청구서 지불 등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표 4〉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구성요소

구분	주요 내용
협업 및 생산성 (Collaboration and productivity)	- 워크 스트림 협업, 회의 솔루션, 클라우드 오피스 제품군, 디지털 화이트보드 및 스마트 워크스페이스
안전한 보안 원격 액세스 (Secure remote access)	- 암호 없는 인증 및 멀티팩터 인증, ZTNA(Zero Trust Network Access), 보안 액세스 서비스 엣지(SACE), 새로운 보안 경계로서의 ID
클라우드 및 엣지 인프라 (Cloud and edge infrastructure)	- 분산형 클라우드, IoT, API 게이트웨이, AI at the edge, 엣지 프로세싱
디지털 경험의 정량화(Quantification of the digital experience)	- 디지털 환경 모니터링, 워크프레이스 분석, 원격 지원 및 비접촉식 상호작용
원격 운영 지원을 지원하는 자동화 (Automation to support remote operations)	- TAIOps, 앤드포인트 관리, SaaS 관리 플랫폼, 셀프서비스 및 제로터치 프로비저닝(provisioning)

자료: Gartner(2020.10.)을 참고하여 정리함

(6) 사이버보안 메시(Cybersecurity mesh)

사이버보안 메시(Cybersecurity mesh)는 확장 가능하고(scalable) 유연하며(flexible),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사이버보안 제어에 대한 분산형 아키텍처 접근법이다. COVID-19는 현재 대부분의 자산과 장치가 전통적인 물리적 및 논리적 보안 매개 변수 외부에 위치하는 기존 추세를 가속화했다. 사이버보안 메시지를 사용하면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 디지털 자산에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어디서나 사용(Anywhere operations)’트렌드의 핵심 요소이다.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속화함에 따라 보안도 급변하는 변화에 발맞추어야 한다. 사이버보안 메시는 현재 상황에서 운영에 필요한 가소성을 유지하고 회사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어디서나 사용(anywhere operations)’이 계속 발전되면서 사이버보안 메시는 제어되지 않은 장치에서 클라우드에 위치한 애플리케이션 및 분산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아키텍처의 모듈성과 구성성은 점점 다양한 확장 기업(extended-enterprise) 시나리오 통합을 적절하게 만든다.

(7) 지능형 복합 비즈니스(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

지능형 복합 비즈니스(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란, 상황에 따라 빠른 적응과 현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고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우수한 비즈니스 결과를 이끌어내는 비즈니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구축과정에서 리더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새로운 통찰력으로 정보를 증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가능하고 모듈식이며, 결정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변경 및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은 더 이상 조직 내에서 기능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사결정

재설계는 조직내 모든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재고하고 풍부한 데이터 및 인사이트를 통해 머신 증강(machine augmentation)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그러나 새롭게 재설계된 결정에는 개발, 조립 및 배포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데 현재 또는 단일화된(monolithic) 애플리케이션 및 개발환경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고객참여, 직원상호작용, 머신 트랜잭션(transaction) 또는 에코시스템 파트너십에서 나타나는 구성 가능한 비즈니스 순간은 재설계될 것이며 조직의 유연성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COVID-19로 인해 고객에 대한 주요 경로가 차단된 경우에 조직은 B2B 비즈니스 모델에서 B2C 상거래 기능을 포함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

(8) AI 엔지니어링(AI engineering)

AI 엔지니어링(AI engineering)은 광범위한 운영 AI 및 의사결정 모델의 거버넌스와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중점을 둔 분야이다.

AI 엔지니어링은 여러 AI 기술의 조합을 운영할 때 가치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면서 조직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고 과대 광고를 완화한다. 생성 모델은 설계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창의적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가트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구현이 어려운 이유는 기존 인프라와 AI 솔루션 통합의 복잡성 때문이다. AI는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유지 관리성, 확장성, 거버넌스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강력한 AI 엔지니어링 전략은 AI 모델의 성능, 확장성, 해석 가능성, 안정성을 촉진하며 동시에 AI 투자의 전체 가치를 제공한다.

(9) 초자동화(Hyperautomation)

초자동화(Hyperautomation)는 기업이 AI, 머신러닝, 이벤트 중심 소프트웨어, 로봇틱 프로세스 및 작업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가능한 많은 비즈니스 및 IT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이다.

초자동화는 운영 복원력이 뛰어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트너는 대규모 상업 조직의 70% 이상이 수십 개의 초 자동화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2020년 9월에 기업 및 IT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는 향후 6~9개월 동안 새로운 AI 투자를 계속하거나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3. 주요 전략적 기술 조치(Action)

가트너에서는 2021년 전략적 기술을 소개하면서 각 기술별 조치(action)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표 5〉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 of action

구분	Action
행동인터넷 (I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B 배치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하고 미치는 영향 조사 - IoB 구축 설계 시 조직과 개인 모두에 대한 이점과 위험을 평가 - 개인정보보호, 보안, 윤리 및 상호연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총체적 경험 (Total exper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전체의 고객 경험, 직원 경험, 사용자 경험, 멀티 경험 리더 또는 우수센터와 협력하여 활동 사일로를 넘나드는 총체적 경험의 '융합팀(fusion team)' 구성 - 팬데믹으로 노출된 고객과 직원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격차 파악하고 총체적 경험을 사용하여 해결할 새로운 목표의 비즈니스 결과(outcome) 결정 - 고객 경험, 직원 경험, 사용자 경험, 멀티 경험으로 인해 보류된 중요한 비즈니스를 찾아 총체적 경험 적용
개인정보보안 강화 컴퓨팅 (Privacy-enhancing compu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정보 보호 컴퓨팅 지원자 식별 - 활용사례에 대한 기타 접근 방식의 효과와 구현 요구사항 차이를 평가 ex) 차등 개인정보보호, 동형 암호화, 안전한 다자간 컴퓨팅,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 등

구분	Action
분산형 클라우드 (Distributed Clou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형 클라우드 사용시 이점을 전달하여 이해 관계자의 사고 방식 전환 - 위치 의존적인 활용사례를 공략하여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분산형 클라우드 변전소를 사용하여 향후 향상되는 분산형 클라우드 식별 . 짧은 대기시간, 테더링(tethered) 규모 및 데이터 상주시간 등
어디서나 사용 (Anywhere ope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경험 모니터링, 엔드포인트 분석, 셀프서비스 프로비저닝 및 원격 문제 해결 도구를 사용하여 직원 경험 향상 - 원격 지원 및 음성제어 협업 도구를 위한 증강현실 웨어러블을 제공하여 일선 작업자 (frontline workers)의 생산성 향상 - 팀 구조, 프로세스, 기술 및 도구를 채택하여 디지털 퍼스트, 위치 독립적 전략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혁신 추진 - 혼합된 작업공간을 구축하여 분산형 클라우드 및 엣지 기술 투자
사이버보안 메시 (Cybersecurity me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제곱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직의 모든 작업을 포함하는 위치 독립적인 사이버보안 제어 제공 -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보안 원격 액세스를 위해 클라우드 제곱 ZTNA를 사용하여 기존 VPN에서 전환 - 적응형 액세스(adaptive access) 제어 및 실시간 트래픽 검사가 필요한 경우 CASB 또는 SWG를 사용하여 SaaS 액세스 제어에 대한 게이트웨이 접근 방식 탐색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및 고성능 액세스를 위한 조직의 제로 트러스트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요청
지능형 복합 비즈니스 (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에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검토하여 재설계 연습을 시작하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파악 - 비즈니스 변화 속도와 기술 변화속도를 초과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찰지점 식별 - 통합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분석 전략 개발
AI 엔지니어링 (AI enginee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모델 운영을 위한 기술적 부채 및 복잡한 유지관리 절차 최소화 - AI 모델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데이터 과학, IT 등 세 가지 핵심팀을 포함 시켜 모든 이해 관계자를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와 결과 신뢰성 일치화 - 조직 내에서 AI 기술을 식별하고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통합문제를 해결하며, AI 기술을 결합하여 완전한 표현력 달성 - 도메인 지식과 인적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통찰력에 대한 컨텍스트 제공보완
초자동화 (Hyperauto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가능한 모든 것이 자동화 되도록 하는 권한 부여 계획 - 자동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스트림의 실험을 최적화가속화 - 작업 자동화의 섬이 아닌 집단 이니셔티브의 전체적인 매핑 요구 . 비즈니스 중심의 초자동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반복적인 다년간의 여정을 기반으로 IT 투자 우선순위 지정 - 운영 복원력, 효율성, 민첩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 거버넌스 및 부채를 최적화하기 위한 동시 이니셔티브 설계 및 계획 - 초자동화로 로드맵을 설계·구축·확장·관리하는 반복적인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융합팀 활용

자료: Gartner(2020.10.)을 참고하여 정리함

4. 결어

정부에서도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가트너와 유사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보안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¹⁾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가트너가 제시한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을 살펴 보았다. 가트너 부사장 Brian Burke는 ‘2020년 전례없는 사회경제적 과제는 미래를 변화시키고 구성하기 위한 조직의 탄력(plasticity)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세 가지 테마와 9개의 트렌드를 소개했다.

‘COVID-19’로 인해 달라진 일상에는 식당 출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재고 QR 코드를 인식하여 출입시간 등 기록을 남긴다. 화상회의를 통한 회의가 증가되었으며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해 업무용 클라우드 및 협업도구가 활성화 됐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롭게 나타날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가트너는 전세계에 ‘COVID-19’라는 공통화두를 던져 새로운 환경에서 대비를 위한 전략적 기술의 트렌드를 설명하고 적절한 예시와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트렌드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적인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트너의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는 COVID-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예측불가능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참고문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1) 관계부처 합동(2020.6.),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20.6.)”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0.6.),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20.6.)”

Gartner(2020.10.),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